

국어과 교재의 상대 높임 화계 설정과, 구어 현실

홍종선 고려대학교

김서형 경기대학교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098).

- I. 머리말
- II. 상대 높임의 화계 설정 실태와 구어 현실
- III. 사용자 중심 교재의 상대 높임 화계
- IV. 마무리

I. 머리말

높임 표현은 한국어에서 보이는 언어적 특징으로 대표적인 것이며, 특히 상대 높임은 화자(/필자)와 청자(/독자) 등의 관계에 따라 세밀하게 분별되어 나타나는 문법 범주이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와의 높임이나 친밀성 등의 정도를 가늠하여 적절하게 화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상대 높임의 표현 형태를 결정하여 발화한다. 이 때 상대방(청자)이 높임의 정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화행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발화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심지어 대화가 오해를 만들거나 파국의 상황으로 변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상대 높임의 표현을 상황에 맞게 잘 수행하지만, 간혹 화자와 청자 사이에 그 적절성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국어 학습 단계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상대 높임에 대하여 따로 학습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상대 높임 표현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것은 높임법이 문법 범주로 존재하지 않는 대다수의 외국어권 학습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그만큼 상대 높임의 화계는 여러 층위로 나뉘어 있어 그 인식 양상이 섬세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국어의 상대 높임 체계를 현실감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말 언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인식하는 상대 높임의 화계를 설정하고 이를 국어 교육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어 교육을 위한 이러한 상대 높임의 화계 설정은 비단 교육용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어학의 문법 체계에서도 현재 내국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인식하는 상대 높임의 화계가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학 이론에 충실한 문법 체계도 의미가 있지만 언어 현실에 충실한 문법 체계 역시 학문적으로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결국 언어학이나 언어 교육 모두 언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 체계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문어보다도 구어가 좀더 커다란 비중을 갖는다고 하겠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하지만 오늘날 일상화되어 있는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문어에서도 구어적인 요소가 다분히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도 주로 구어 위주로 국어의 상대 높임 실태를 고찰하지만, 그 결과 양상은 문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체로 구어는 문어보다 통시적인 변화가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변화의 양이나 속도가 다른 문법 범주보다 커다란 상대 높임은 그만큼 구어와 문어와의 차이도 많으리라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 표현에 나타나는 화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인식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국어과 교재에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어학 연구에서의 견해와 국어 교육 교재에서 보이는 상대 높임 표현의 화계 체계를 고찰하면서 그 성과의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언어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진정성 있는 국어학의 문법 체계를 세우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이와 같은 재인식이 요구되겠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상대 높임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필자는 이미 김서형·홍종선(2015)에서 명령형으로 대표되는 상대 높임 체계를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살핀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결법의 용언 서술어에 나타나는 상대 높임 표지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Ⅱ. 상대 높임의 화계 설정 실태와 구어 현실

국어의 상대 높임으로 나타나는 화계에 대해 일찍이 최현배(1937)에서 ‘합쇼(아주 높임), 하오(예사 높임), 하계(예사 낮춤), 해라(아주 낮춤)’와 ‘해(반말)’를 들고, 이익섭(1974)에서 여기에 ‘해요’를 더한 6등급 체계를 보였으며, 고영근(1974)에선 최현배(1937)의 4등급 체계와 ‘반말’에 ‘해요’를 더하여 2원적 체계를 세웠다. 이후 서정수(1984), 성기철(1985), 남기심·고영근(1993) 등에서도 격식체 4등급과 비격식체 2등급을 세워 화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굳어졌고, 오늘날 이관규(2016)이나 학교 문법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대 높임의 화계 체계는 학교 규범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국어’ 과목의 교재와 고등학교 현행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민현식 외(2013), 윤여탁 외(2013), 이삼형 외(2013) 등의 「중학교 국어 5」에서는 모두 격식체의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비격식체의 ‘해요체, 해체’를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 이는 고등학교 문법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2002)의 「고등학교 문법」이나 현행 문법 교과서인 윤여탁 외(2014), 이관규 외(2014), 이도영 외(2014), 이삼형 외(2014), 한철우 외(2014) 등의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재에서도 똑같은 상대 문법의 화계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교재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2002: 173)의 아래 <표 1>을 모태로 하도록, 교육부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표 1>의 체계는 이후의 중·고교 문법 교재와 학교 문법의 기준이 되고 있다.

표 1. 상대 높임법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 식 체	하십시오체	가합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
	하오체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계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냐? 가니?	가(거)라, 가렴, 가려무나	가자	가는구나
비 격 식 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해체 (반말)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위의 표를 보면 국어 표현의 상대 높임을 종결형에 따라 매우 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 높임법 체계는 이미 최현배(1937)에서 나타나는데, 다만 여기에 ‘-요’를 어미 체계 안에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화계의 설정들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전체 체계에서는 물론 개별적인 화계 항목에서도 언어 현실과 어긋나는 문제들이 많이 보인다.

우선, 각 화계의 특성에서 ‘아주낮춤’이라는 화계 설명은 오늘날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는 봉건 시대에 하인에 대한 주인의 관계 정도에서나 적용될 만한 설명이다. ‘아주높임’에 대한 상대적인 체계성을 고려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용어 설정은 옳바르지 못하다. 언어 체계에는 반드시 대응 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높임’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상대되는 ‘낮춤’을 드는 것조차 정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친한 사람끼리는 해라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아주 낮추는 표현이라기보다 서로 간에 격식을 없애고 가깝게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라체를 격식체로 보는 것도 어색한 분류이다.

국어에서 ‘높임법’에 관여하는 주요 자질로 [respect]와 [intimate]를 들 수 있다. 높임법 자질에 관해 이미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power] 이론이 많은 지지를 받는 듯하다.¹⁾ [respect]

1) 이제까지의 연구들에서는 [respect], [intimate], [formal], [distance], [solidarity], [power] 등 여러 가지 자질들이 제시되었는데, 대부분 하나의 자질로 전체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어 높임법 범주에는 [respect]과 [intimate]가 함께 적용되며, 이

와 [intimate]은 모두 [power]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요인이므로, 이들이 [power]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의 ‘높임’ 영역에는 [respect]가 주로 작용하고, ‘낮춤’ 영역에서는 [intimate]가 주로 적용되어 이들이 각각 [power]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respect]나 [+intimate]를 ‘낮춤’의 자질로 해석하기보다는 ‘안 높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국어의 높임법 체계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는 것이나, 그 각각에 해당 화계들을 나열하는 것이 모두 실제의 언어 현실과 거리가 있다. ‘해라’는 격식적인 표현이고 ‘해요’는 비격식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너무 도식적으로 나눈 결과이다. 물론 ‘해, 해요’가 다른 화계 표현에 비해 다소 친근감을 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격식과 비격식으로 나눌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격식적인 자리에서는 ‘해라’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해요’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비격식체 어미에만 ‘-요’를 붙일 수 있다는 특징이 화계 등급화에까지 적용할 근거는 없다고 본다. 상대 높임의 화계 체계는 오로지 높임 정도에 따른 등급화에 충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 표에서 각 화계에 해당하는 활용 어미들을 항목마다 넣어 놓았는데, 이들 어미가 꼭 그러한 화계를 가졌다는 보장은 없다. 즉 <표 1>에서 각 어미 형태는 횡적으로 같은 화계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들이 똑같은 높임의 정도를 갖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형태를 제시한 항목도 보인다. 몇 개만 들기로 한다.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에 ‘가시지요’를 넣었다. 그러나 ‘가시지요’는 위 체계에 따르면 비격식체 반말(해체)에 ‘-요’가 결합한 해요체 ‘가지요’에 다시 ‘-시-’가 더한 구성이다. 위 표에서는 하오체 ‘가오’와 ‘가시오’, ‘가요’와 ‘가세요’에서 보듯이, 주체 높임의 ‘-시-’가 결합하더라도 화계에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가시지요’는 해요체 ‘가지요’와 똑같은 화계를 가져야 한다. 체계를 갖추려면 차라리 한철우 외(2014)에서처럼

전의 이른바 ‘높임’에는 [respect]가, ‘낮춤’에는 [intimate]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이 글의 3장에서 할 것이다.

‘하십시오’를 넣어야 한다. 임지룡(2015)나 이관규(2016)에서는 ‘하십시오’에 아주 높임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가장 높은 청유 표현으로 이 형태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된다.

하오체의 명령법 안에 ‘가오’와 ‘가시오’를 함께 넣었고, 해요체 안에 ‘가요’와 ‘가세요’를 같이 다루었다. ‘가시오’와 ‘가세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는 주체 높임이므로 상대 높임의 화계 분화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일반 언중들 가운데 명령형으로 ‘가요’와 ‘가세요’를 같은 높임 층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국어학이나 국어 교육(학)에서 세운 높임법 체계는 언어 현실성이나 언중들의 인식과 커다란 괴리를 가지고 있다. 명령형에서 주체 높임은 명령문의 주어인 청자에 대한 높임이므로 곧 상대 높임으로 작동되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²⁾ 이 때 평서법이나 의문법에서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선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격식체의 가장 높은 이른바 ‘아주 높임’에서는 평서법에 ‘가십니다’, 의문법에 ‘가십니까?’를 넣었다. 이 체계는 상대 높임을 말하는 것인데 주체 높임의 ‘-시-’가 모두 들어가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 ㄱ. 선생님께서 산에 가십니다.
 ㄴ. 선생님께서 산에 가십니까?
- (2) ㄱ. 제 동생이 산에 갑니다.
 ㄴ. 제 동생이 산에 갑니까?

예문 (1)은 국어학이나 국어 교육에서 세운 체계에 의해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가 확실하다. 그런데 (2) 역시 청자에 대해 화자는 가장 높은 화계로 말하는 것이므로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표 1>에 의하면 (2)에서도 ‘가십니다, 가십니까?’가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명령법에서는 2인칭의 주체 높임이 상대 높임으로 작동하지만 평서법이나 의문법은 그러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2) 국어에서는 명령문의 주어로 2인칭 외에 3인칭이 가능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1인칭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인칭 주어 형태를 상정하는 것이다.

주체 높임이 들어간 ‘가십니다, 가십니까?’가 아닌 ‘갑니다, 갑니까?’가 되어야 한다.³⁾ 구태여 명령법의 ‘가십시오’ 형태와 궤를 맞추기 위해 다른 종결법(평서법, 의문법)에서도 불필요하게 ‘-시-’가 들어간 형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하오체의 평서법과 의문법에서도 주체 높임을 넣은 ‘가(시)오’와 ‘가(시)오?’로 할 필요가 없이 ‘가오’와 ‘가오?’면 충분하며, 오히려 ‘가시오’와 ‘가오’를 하나의 화계에 넣은 것은 잘못이다. 하오체의 명령법에서도 ‘가(시)오’라 하여 ‘가오’와 ‘가시오’를 같은 화계로 보았는데, 이들의 높임 정도는 매우 달라서 하나의 화계로 다룰 수가 없다. 이는 하계체에서 ‘가는가’와 ‘가나?’를 ‘가(시)는가’와 ‘가(시)나?’로 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명령법에서도 주체 높임의 ‘-시-’를 상대 높임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높임법 체계에서, 하오체의 ‘가시오’와 달리 하십시오체의 ‘가십시오’를 제시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하오체의 ‘가시오’에 주체 높임의 ‘-시-’를 더한 ‘가십시오’를 하십시오체로 제시한 것은 ‘-시-’가 상대 높임으로 작용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 화계에서 실례 형태 제시에 일관성이 크게 어그러져 있다.

애초에 ‘하오체’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흔히 ‘현대 국어의 높임법’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오늘날 국어의 높임법’을 의미한다. ‘현대 국어’라 하면 국어사에서의 시대 구분에 따라 통상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부터 오늘날까지를 그 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20세기 초의 국어 높임법을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높임법 체계와 내용은 오늘날과 적잖이 다른 100여 년 전의 국어 높임법은 똑같은 체계로 함께 다룰 수가 없다. 다른 분야보다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변화가 많은 높임법 범주의 표현은 그 동안 적잖은 변화를 겪은 것이다. 따라서 100여 년 전에 설정한 ‘하오체’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보장이 너무나

3) 중·고교 교재 가운데 민현식 외(2013)에서만 ‘갑니다’와 ‘갑니까?’라는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없다. 실제로 ‘하오’ 형은 20세기 전반기까지의 문헌에서는 많이 쓰였지만 오늘날엔 극히 일부의 노년층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정황은 ‘하게체’에서도 엇비슷하게 나타난다. 위의 <표 1>에 나오는 하게체의 어미들 가운데 일부만 비교적 노년층에서 간혹 사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언중들은 하게체 표현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하게체는 높임 층위의 성격상 문어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어에서 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하게체도 기본적인 국어 화계 체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Ⅲ. 사용자 중심 교재의 상대 높임 화계

언어학 연구에는 언어 연구자 중심의 이론과 논리도 있고 언어 사용자 즉 언중 중심의 시각도 있다. 이제까지의 언어학에서는 대체로 연구자 중심의 이론에 바탕하는 연구를 주로 해 왔는데,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언어 교육학이나 언어 교육은 언어학적인 이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언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언어 사용자에게 설득력이 적고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국어 교육(학)의 체계나 내용도 국어 사용자들의 인식양상을 고려하는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명령문의 서술어에서 나타나는 ‘-시-’를 주체 높임이라고 하여 상대 높임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언어학적 이론 체계에만 충실할 뿐 일반 언중들의 언어적 인식이나 직관은 도외시한 해석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어의 높임법 체계와 구성은 국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어 사용자의 인식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국어 교육을 위한 높임법 체계는 국어의 일반 사용자에게 설명력을 제대로 갖추고 국어 학습자들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현실 언어와 괴리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학 이론이나 국어 교육 교재에 나타난 국어 상대 높임의 화계 체계와 내용은 언어 현실과 거리가 있고 국어 사용자들의 인식과도 어긋나 있다.

이제 국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사용자들의 인식에 충실하면서도 국어학 이론에 어긋남이 없는 상대 높임 체계와 내용을 논의한다. 이는 중·고교의 국어과 교재 등 학교 문법의 체계와 내용이 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내용은 편의상 반복 서술하지 아니 하고 간략히 줄이거나 보완 설명을 덧붙이기도 할 것이다.

먼저, 상대 높임의 기본적인 화계는 1원적인 체계로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별 의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격식체라 불리는 ‘해, 해요’는 격식체에 비해 다소 공손성이나 친근성을 더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높임법 체계의 분별 요인으로 환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실제 구어에서 어떤 발화가 얼마나 격식성을 갖는가는 주로 음성·음운론적인 어조에 의해 결정되며 이 밖에도 몸짓, 표정 등 다양한 발화 태도 개입 요소들도 종결 어미의 형태 차이보다 크게 작용한다.

화계의 등급은 국어학이나 국어 교육학에서의 기존 연구 내용을 재조정하여,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십시오체, 하세요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라는 5등급을 기본으로 한다. 중·고교 국어과 교육에서는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높임 표현을 체계화하여 기본 화계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 사용이 매우 적고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하오체’와 ‘하게체’는 제외되는데, 이들은 기본 체계에서 배제되지만 심화 학습으로 다룰 수 있다. 이들은 표현 언어보다 이해 언어로서 값을 가지는 것이다. 심화 학습에서는 ‘하라체’도 언급할 수 있다.

‘하십시오체’는 기존 체계와 같다. 다만 평서법과 의문법의 형태는 ‘갑니다’와 ‘갑니까?’이다. 물론 ‘가십니다’나 ‘가십니까?’도 하십시오체에 속하지만 교재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형태로 놓지는 않는다. ‘가십니다, 가십니까?’에는 주체 높임의 ‘-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유법은 앞에서 한 설명대로 ‘가시지요’가 아니라 ‘가십시다’이다. 청유

형의 주어는 비록 1인칭 ‘우리’이지만 여기에는 청자도 포함되므로 주체 높임의 ‘-시-’를 넣어 상대 높임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가세요/가셔요’의 화계를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해요체 안에서 ‘가요’와 한꺼번에 다루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명령문에서 ‘가세요’의 높임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이들을 한 화계 안에 함께 넣을 수가 없으므로 하세요체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 높임의 새로운 화계 설정에서 빠진 하오체와 하계체 표현 가운데 아직 조금은 사용되고 있는 일부의 표현 형태를 수용하기 위한 역할로서도, 이들과 높임의 정도가 엇비슷한 하세요체의 설정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세요체의 평서법 형태는 ‘가세요/가셔요’이다. 이 형태는 의문법에서와 같지만 어조에 따라 평서법과 의문법으로 달리 실현되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세요체의 의문법에선 ‘가세요?/가셔요?’가 일부 가능하다. 의문문에서도 주어를 제2인칭으로 할 경우에 주체 높임이 곧 상대 높임으로 기능하는데, 청자에 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 그러하다. 이 때 ‘가세요?’ 형태는 곧 하세요체인 것이다. <표 1>에서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으로 든 ‘가시지요’는 하십시오체에 근접하지만 정확하게 적용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려웠는데, 하세요체를 설정할 경우 여기에 확실하게 해당된다. 이상의 발화 양상을 종합할 때 하세요체를 상대 높임에서 기본적인 화계 체계에 넣은 것은 타당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표 1>에서는 감탄법의 ‘가는구려’는 하오체, ‘가는구먼’은 하계체로 보았다. 이러한 배당은 대체로 적절하지만 이는 언어 직관에 따른 상대적인 배분일 뿐 이것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형태 구조적인 면이나 실제 언어생활 면에서 꼭 들어맞는다고보다 인정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구어 위주로 체계화를 할 때에 ‘가는구려’보다는 감탄 어조의 ‘가세요’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형태면에서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해 언어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는구려, 가는구먼’을 설정하는 것이다.⁴⁾

4) 실제로 감탄법을 종결법 형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만한가 하는 문제도 있다. 감탄

하오체와 하계체가 제외되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제외된 체계에 있는 종결 형태 가운데 오늘날 다소 그 사용이 남아 있는 표현은 그 높임의 정도에 따라 각각 하세요체와 해요체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하계체의 여러 표현 가운데 오늘날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게’는 새로운 화계 체계에서 해요체에 넣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국어 교육 교재에서 ‘가게’는 사용 언어라기보다 이해 언어의 성격을 좀더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하오체에서는 기본적인 새 화계 체계에 넣을 만한 종결형을 찾기가 어렵다. ‘가요’ 정도면 해요체의 청유법에 보탬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하십시오체의 명령법이 가능한가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 즉 매우 높임의 명령문은 대개 권유나 제안 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령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무리함에 없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문법론적 질서를 근거로 삼아, 모든 화계에서 명령법이나 청유법을 설정하였다. 또한 상대 높임의 표현은 현실적으로 한두 등급 정도의 화계 간에 넘나들기 (switching)이 화행 중에 자주 나타나므로, 상하로 이웃하는 화계의 형태가 넘어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음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따라 새로 설정한 국어 상대 높임법의 화계 체계와 체계별 대표적인 형태를 보이면 아래의 <표 2>가 된다.

표 2.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법 체계와 형태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하십시오체	갑니다	갑니까?	가십시오	가십시오	—
하세요체	가세요/가셔요	(가세요?/가셔요?)	가세요/가셔요	가시지요, 갑시다	가는구려
해요체	가요, 가지요, 가네요	가요? 가지요? 가나요?	가요, (가게)	가지요 (가요)	가는구면, 가요, 가네요
해체	가, 가지, 가네	가? 가지? 가네? 가나?	가, 가지	가지	가, 가지, 가네

표현은 평서법 등의 종결형이 화맥상 감탄의 어조를 갖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해라 체	간다	가냐? 가니?	가(거)라	가자	간다, 가는구나
---------	----	---------	-------	----	-------------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실제 언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사용되는 국어의 코퍼스 특히 구어 코퍼스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방영된 영화나 방송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언어를 점검하고, 균형 말뭉치에서 출현하는 용언 활용형의 빈도 등을 조사하여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상대 높임 표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어와 문어 코퍼스를 각각 조사하여 이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국어 사용의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

김서형·홍종선(2015)에서는, 국립국어원이 2007년 배포한 약 1,200만 어절 규모의 ‘현대 문어 형태 분석 말뭉치’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는 구어만을 대상으로 용언 ‘하-’와 접미사 ‘-하-’가 포함된 용언의 빈도를 살펴보고,⁵⁾ <표 3>과 같이 2010년을 전후하여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한 회분씩 뽑아 대화문의 종결형 화계를 조사하였다. 위의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도 ‘하계’와 ‘하오’는 다른 형태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적게 출현하였다. 조사 대상 드라마는 각각 A(“내 이름은 김삼순” 3회, 2005, MBC), B(“너는 내 운명” 11회, 2008, KBS1), C(“온에어” 21회, 2008, SBS), D(“불굴의 며느리” 2회, 2008, MBC), E(“반짝반짝 빛나는” 22회, 2011, MBC), F(“왓츠업” 10회, 2011, MBN), G(“내 딸 서영이” 4회, 2012, KBS2)였다.

5) 이는 이른바 ‘세종 말뭉치’인데, 현재 구어만으로 된 상당한 규모의 적절한 균형 말뭉치가 없어서 우선 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 3. 텔레비전 드라마 대화문에 나타난 종결형의 화계⁶⁾

	A	B	C	D	E	F	G
하십시오	43	15	34	10	65	21	38
하오	0	0	0	1	0	0	3
하계	7	0	0	0	1	1	4
해라	40	26	28	34	33	50	9
해	314	149	177	191	180	397	306
해요	123	112	243	51	85	103	86
하세요	12	21	36	19	22	7	18

<표 3>을 보면, ‘하오’와 ‘하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A나 G에서 조금 보이는 하오체와 하계체는 등장 인물의 개인적인 말투 때문인데, 가령 드라마 A의 하계체 7번은 모두 인물이 ‘하나?’형 의문문이다. ‘하나?’를 <표 2>에선 ‘해체’에 넣었지만, <표 1>에서 하계체에 넣은 것보다 문제될 것이 없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어의 표현, 특히 구어 표현에서는 하오체와 하계체를 무시해도 될 정도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해 언어로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표현 언어로서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국어 교재에서도 본문이 아닌 심화 학습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재는 물론 국어 교재에서도 오늘날 현실적인 구어에 좀더 충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교재에는 현재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둘을 포괄하든가 아니면 이들 둘 사이의 언어적 차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곳에서 구어와 문어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어 교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무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직 한국어 학에서 구어와 문어에 대하여 대비적인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지 못

6) 김서형·홍종선(2015: 18)의 <표 2>를 그대로 전재한다.

하지만, 그래도 국어 교재에서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가 커다란 항목 등에서는 가능한 정도라도 이와 관련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때에 교재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기반은 구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IV. 마무리

국어의 높임 표현은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변화가 비교적 많은 문법 범주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상대 높임 표현은 근·현대를 지나 오늘날에 이르면서 체계상의 변화를 더욱 많이 겪었다. 그러나 국어학에서 설정한 상대 높임 화계는 20세기 전반기에 이미 체계화를 한 후 별다른 수정이 없이 지금까지 답습되고 있어 오늘날의 일상적인 언어 현실과 거리가 적지 않다. 오늘날 국어학은 물론 국어 교육(학)에서도 이러한 언어 현실의 반영에 매우 소극적이고, 그것은 국어 문법 교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언어학이나 언어 교육에서 언어 이론은 중요하지만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제의 언어 현실과 사용자의 인식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 중심의 문법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응용 국어학 분야에서 사용자를 위한 효율적인 문법 체계와 내용을 갖는다.

지금까지 일반화되어 있는 4등급의 격식체와 2등급의 비격식체라는 2원적 높임 체계는 오늘날 비현실적이므로 필자들은 이러한 구분이 없이 명령법에서 ‘하십시오체, 하세요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를 기본으로 하는 1원적 5등급의 화계를 제안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근거하면서 각 종결법에서도 이러한 체계가 타당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자주 접하는 일상적인 언어 체계를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습 교재에서 이를 기본적인 상대 높임 화계로 설정하고, 그 쓰임이 아주 한정적인 하오체나 하계체, 하라체 등은 심화 학습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대 높임의 실태는 구어 코퍼스 등의 언어 자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국어학계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일반적인 일상 대화문 등의 균형 구어 코퍼스를 갖추지 못하여 우선 본고에서는 방송 드라마 등에서 소극적으로 살피었지만, 이는 곧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논문은 2016.08.07. 투고되었으며, 2016.08.08. 심사가 시작되어 2016.09.04.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논저]

- 고영근(1974), 「현대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서울대 어학연구소, 66-91.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5), 『한국어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서형·홍종선(2015), 「사용자 중심의 한국어 상대 높임 표현의 체계와 교육」, 『문법 교육』 25, 한국문법교육학회, 1-25.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 박지순(2014), 「상대높임법 교육 관점 비교 연구」, 『문법 교육을 위한 학문간 접근 방법 모색』, 한국문법교육학회 제20차 전국학술대회, 한국문법교육학회, 128-143.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 성기철(1985),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 성기철(1999), 「20세기 청자 대우법의 변천」,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45.
- 신호철(2012), 「맥락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 기술 방안 연구 —높임 표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323-348.
- 양영희(2010), 「국어 높임법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39-259.
- 유송영(1994), 「국어 청자 대우법에서의 힘(power)과 유대(solidarity)(1)」, 『국어학』 24, 국어학회, 291-317.
- 이관규(2016),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문법론』, 역락.
- 이은희(2010), 「한국어 높임법 교육 내용 연구」, 『문법 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281-315.
- 이익섭(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39-64.
- 임지룡(2015), 「학교문법 상대 높임법의 새로운 이해」, 『한민족어문학』 69, 한민족어문학회, 359-398.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Martin, S.(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Baltimore.(『역대문법대계』 2-79.)

Sohn, Homin(1981). Power and solidarity in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on Language & Social Interaction* 14(3), 431-452.

[교재]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09), 『재미있는 한국어 2』, 교보문고.

민현식 외(2013), 『중학교 국어 5』, 좋은책신사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두산동아(주).

윤여탁 외(2013), 『중학교 국어 5』, ㈜미래엔.

윤여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이관규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이도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이삼형 외(2013), 『중학교 국어 5』, 두산동아.

이삼형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학사.

국어과 교재의 상대 높임 화계 설정과, 구어 현실

홍종선 · 김서형

국어 생활에서 상대 높임 표현은 지금까지 체계상의 변화를 더욱 많이 겪었으나 그 상대 높임 화계는 20세기 전반기에 국어학에서 세운 체계를 별다른 수정이 없이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다. 국어의 높임법 체계와 구성은 국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어 사용자의 인식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높임법 체계는 국어의 일반 사용자에게 설명력을 제대로 갖추고 국어 학습자들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일반화되어 있는 4등급의 격식체와 2등급의 비격식체라는 2원적 상대 높임의 기본적인 화계는 오늘날 비현실적이므로 1원적인 체계로 하였다. 발화의 격식성은 주로 어조에 의해 결정되며 다양한 발화 태도 개입 요소들도 종결 어미의 형태 차이보다 크게 작용하므로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별 의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학이나 국어 교육학에서의 기존 연구 내용을 재조정하고 언어 현실에서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십시오체, 하세요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라는 5등급과 그에 해당하는 대표형을 상정하였다. 이에 중·고교 국어과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 사용이 매우 적고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하오체’와 ‘하계체’는 제외하되, 다만 심화 학습으로 이를 다룰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상대 높임, 화계, 하오체, 하계체, 하세요체, 1원 체계,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사용자 중심 문법

ABSTRACT

A Settlement of the Relative Honorific Speech Level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and Authentic Spoken Language

Hong Jongseon • Kim Seohyung

Even though Korean relative honorific expressions have gone through a lot in terms of systemic change in real life, the relative honorific speech level has followed the system which set up by Korean linguistics in the early of 20th century as before without any modification. Korean relative honorific system and construction should be based on the theory of Korean linguistics with consideration of Korean Speaker's realization and awareness. Moreover the research of Korean relative honorific system for Korean education has to seek the explanatory to Korean normal speakers and provide comprehensible contents to Korean language learners of as the first and second languag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lative honorific speech level is realized in mono system as a basic relative honorific system. This is from the idea that it is not realistic that there is four kinds of classes of formal style and two kinds of classes of informal style in dual system of the relative honorific speech level. The formality of utterance commonly depends on tone and involves the intervention elements of utterance manner. Hence, the dual system of the relative honorific speech level is not meaningful. This paper tries to set up the relative honorific speech level from 'Hashipsio, Haseyo, Heyyo, Hey, and Heyla style' according the degree of honorification and presents the retrospectives form of them by each. This is through reformulating the former researches and taking the frequency of use in real

life. To educate Korean as the first and second language, this paper also suggest that ‘Hao-style’ and ‘Hagye-style’ are excluded from the basic system but handled in enrichment program.

KEYWORDS relative honorification, speech level, Hao-style, Hagye-style, Haseyo-style, mono system, Korean education as the first language, Korean education as the second and foreign language, speaker-based grammar